

농촌사회를 바람직한 장수지역사회로 전환할 때이다.



박상철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체력과학노화연구소장
과학기술부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

1. 농촌지역사회를 장수사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1) 고령사회가 아니라 장수사회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세계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노인은 부정적·비생산적·피보호적 대상으로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노인은 생산적 능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능동성이 없는 존재라는 시각이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고령사회(Aging or Aged Society)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장수사회(Long Live Society)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장수사회라는 개념은 고령사회라는 개념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비되는 개념이다.

첫째, 구성원들이 연령에 따라 계층화(classified)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화로운(harmonized)사회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반드시

어떠한 사회적 몫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주는 사회이다. 사회의 제반 시스템에 나이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이 대접받아야만 하는,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dependency-based)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independency-based) 살아야 하는 사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 관점에서 노인을 공경하여야 한다는 문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노인이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에 의한 부양능력은 현실적으로 격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을 객체화(objective)하여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제한하고 피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사회건설과 보존에 앞장을 설수 있도록 주체화(subjective) 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즉 노인이 사회적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2) 지역적 장수문화를 진흥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화규범을 장수문화라고 규정하여 본다. 장수문화(Longlive Culture)란 종래의 문화적 질서를 재정비하여, 노인에게 권리는 물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총칭한다. 이러한 장수문화는 몇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성이다. 장수인들은 주로 일정지역에서 장기간 살아오면서 그 지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적 고유성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장수인들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긴밀하게 얽힌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청장년층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장수문화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극대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장수인들의 기본속성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고 이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따라서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보수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전진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농촌 사회가 바람직한 능동적 2차 고령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외부 문물과 문화 유입을 위한 선별적이되 수용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셋째, 장수문화는 멋과 보람이 있어야 한다. 노인

들은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요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흥을 돋우어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에 흥이 깃들고 멋이 우러날 때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강한 매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멋과 보람을 위하여서는 참여와 봉사의 정신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적절한 소일거리와 아울러 지역 봉사의 보람을 줄 수 있는 작업이나 문화적 활동이 부여 되었을 때 신명나는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수문화는 인간존엄성의 회복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밀려나는 현대사회의 추세는 노인들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더욱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장수문화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적극적 노력과 주도적 활동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노인들은 사회적 주도 능력 특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바람직한 장수사회를 위한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

(1) 1차적 고령사회와 2차적 고령사회

고령사회를 1차적 고령사회와 2차적 고령사회로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청장년층의 농촌지역사회 이탈, 도시 이입 현상으로 초래되는 간접적 고령사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차적 고령사회(primary aged society) 또는 직접 고령사회(direct aged society)는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장수에 의하여 초래되는 진정한 고령사회를

의미하며, 반면 2차적 고령사회(secondary aged society) 또는 간접 고령사회(indirect aged society)는 청장년층의 지역사회 이탈로 인한 피동적 개념성 고령사회와 한편으로는 외부의 노인층인구가 살기 위하여 새롭게 찾아들어 오면서 형성되는 능동적 2차 고령사회가 있다. 따라서 장수지역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1차적 고령사회와 2차적 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역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1차적 고령사회로 발전되면 그 지역은 장수지역으로서 집중적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고령화 현실은 2차적 피동적 고령사회로서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지역은 사회적·산업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 패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다 능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노인층들이 만년을 향유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는 새로운 의미의 2차적 고령사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능동적 2차적 고령사회는 현실적으로 국내 수많은 농촌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동적 2차적 고령사회를 능동적 2차 고령사회로 새롭게 구축하여 바람직한 미래 장수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2) 미래 이상적 장수사회의 전제조건

이상적 장수사회(Gerontopia)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는 지역 고령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능동적·생산적·참여적 일꾼으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삶의 의미를 향유하고 삶

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는 안전보장(Safety) 원칙이다. 그 지역이 건강 보전에 대한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노인사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장애와 질환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양질의 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보건상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통신·교통 등의 사회 환경적 요건도 만족스럽게 보장되어야 지역사회가 노인들이 안심하고 찾아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될 수 있다.

둘째는 문화(Culture)원칙이다. 고령화될수록 젊은이들 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삶을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적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이 갖는 고유한 전통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생산성(Productivity) 원칙이다. 노인층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산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한다. 연령제한이라는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보다 주도적으로 사회참여 일꾼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향유적 삶이 아니라 생산적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교육도 필요하거니와 지역사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봉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 개개인이 사회에 헌신하고 아직도 필요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보장, 문화충족, 생산성 개발(Safety, Culture, Productivity)의 3대 요건은



미래 이상적장수사회(Gerontopia)를 건설함에 있어서 절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단위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근접한 지역들이 뭉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장, 문화충족, 생산성 개발(Safety Culture Productivity :SC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SCP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사회를 “SCP 네트워크 지역사회(Network Community)”라고 지정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장수지역 사회 발전 방안은

1) 지역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장수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특히 주민들은 일반적 고령사회에서 우려되는 연령 차별적·계급화 사회가 아니고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이웃사촌으로서 동료의식을 갖고 마을 일들에 참여하는 연령 통합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 부락 중심의 연령 통합적 관계는 이러한 단위부락들의 구성원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조화로운 어울리는 사회참여원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 장수사회의 패러다임을 이미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마을 간에 매우 개성적인 고유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마을마다 그 구성원들의 역사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즉 인접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의 고유성은 문화적 동질감을 강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 주고 있다.

셋째, 장수지역에서의 노인층의 남녀 성비의 차이가 심화되고 역할 분담이 명료하지 못하였다. 특히 고령화되면서 발생하는 남성노인의 숫자적 격감은 물론, 기능적 측면에서의 남성노인의 역할감소에 따른 소외현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남성 노인 기능 확대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2) 장수벨트지역 발전을 위한 SCP시스템 개발

(1) 안전보장 프로그램(Safety program)센터
 농촌 지역의 대부분 부락들은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사회는 대부분 청장년층의 이탈로 인한 피동적 2차적 고령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장시스템과 활동적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삶의 안전함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 네트워크와 시설안전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 보건의료 네트워크는 인근 보건소들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응급처치, 간호, 개호, 호스피스, 재활치료 등을 위한 전문가 또는 종사자 pool제를 운영하고, 각종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 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보호 대상자를 위하여서는 요양원, 양로원 및 주간 보호소와 재가 보호시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정복지, 사회복지, 영양관리, 작업관리 요원이 공동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하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서는 지역사회 담당관(사회복지·노인복지관련)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의 각종 시설안전을 위한 전문 요원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기성을 갖추고, 전기, 수도, 하수, 위생 등에 필요한 센터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2) 문화·증진 프로그램(Culture & Education Program) 센터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현저하다. 또한 각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뿐이 아닌 지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첨단과학과 발전하는 세계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장수지역에 장수문화 발전센터를 건립하여 산하에 전통문화발전, 교양증진, 효 실천, 장수복지타운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3) 지역 생산성 증진 프로그램(Productivity program)센터

지역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특산품을 강조하는 방안과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는 방법, 또는 지역의 관광 사업을 극대화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각종 역사탐방, 문화탐방, 인물 탐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장수사회 대비 교육기관 건립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진입과 더불어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교육기관

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장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요원 양성은 국가적으로도 당연한 요구이며, 전문요원들이 충분하게 양성되었을 때 바람직한 장수사회 건설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가 되면서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도 장수사회대비 전문요원의 교육 양성은 현실적인 수요요구에 의한 직업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장수사회를 건설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바람직한 장수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검토 분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적 운영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지역이 공동으로 장수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보다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를 개조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의 발전은 종래 우리 농촌사회를 농업대책으로 일관하여 오면서 생산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미래 농촌사회대책으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특히, 급증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바람직한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